기(氣) 치료 관련 특허 아직 불허…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일반인들의 기에 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힘입어 기치료 관련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96년 27건에 머물던 것이 99년에는 35건, 올해는 4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심과는 달리 특허청에서는 기 치료 관련 출원에 대하여 기의 실체에 대한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장치나 방법이 없으며, 기 치료 효과도 입증할 수 없어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

한편 기 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고조로 관련 제품들의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특허가 허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원인은 이의 출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인들도 특허출원 자체만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아니하여야할 것이다.

◈ 기 치료 출원 현황

90년대 기 수련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1조원에 달하는 기 관련시장규모가 말해주듯이 기에 대한 관심의 고조 및 대체의학의 일환으로인체의 건강증진과 질병 치료에 기(氣)에너지를 이용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90년대 후반 들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또한이들의 잠재적시장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 치료 출원 자체만으로 특허 받았거나특허 받을 예정인 것으로 오인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 기관련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95년까지 16건, 96년 27건, 97년 37건, 98년 33건, 99년 35건, 올해는 40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출원내용도 기를 발산하는 문양이나 구조(히란야문양, 육각구조, 피라미드 구조), 기를 발산하는 물질(생약추출물, 바이오세라믹, 티타늄세라믹복합체 등), 수맥파 차단 물질 등으로 다양하다.

◈ 심사 처리 현황

기의 실체에 대한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의 측정 장치나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효과에 대한 의학계의 견해도 통일되어있지 아니하여, 기치료 출원의 경우 현재는 특허 받을 수 없다.

- 기 연구자들 조차도 기를 물리적으로 에너지, 전기(음이온), 파동(뇌파 또는 세포파동), 생체원적외선, 자기 등의 여러 형태로 표현하거나, 이들 형태의 복합이라고 주장하거나, 아예 의념(또는 텔레파시)일 뿐 물리적 형태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기의실체에 대한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 현재의 킬리안 사진기, 자기공명분석기(MRA), 생체전기저항측정기 보다 기능이 완벽한 기의 형태나 모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 의학계 내부에서도 기치료에 대한 임상효과가 균일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양 의학자들은 대체의학적 치료에 대해 부정적이다.

◈ 기(氣) 인정국가 및 국내 · 외의 기 관련 연구활동

- 중국이 96년 국민건강 차원에서 사회기공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제정해 기공사 자격제도 등을 두어 공인한 것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氣)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생체에너지, 공간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과기부의 용역에 의한 과

학기술연구원의 공간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에서 기의 실증사례에대한 연구결과 100%확증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관련기술의 출원증가

- 전자문서의 위 변조 방지 및 거래주체확인 위해 -

O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전자문서의 위 변조를 방지하고 전자문서의 거래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이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43건으로 이는 99년의 같은 기간의 27건에 비해 60%증가한 것이다.

O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문서의 거래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기술은 26건,전자문서의 내용증명을 위한 메시지 인증기술은 7건, 전자문서의 이용과 거래를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전자인증기술은 10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5%, 16%, 42% 증가한 것이다.

O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국가와 기업 및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전자문서의 진위여부가 국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 99년 7월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증관련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특허출원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O 99년도 인증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은 80건으로 사용자 인증기술이 69%, 메지시인증기술이 13%, 전자인증기술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용자인증기술은 개인 및 중소기업 82%, 국내대기업 2%, 외국기업 16%이고, 메시지 인증기술은 개인 및 중소기업 70%, 외국기업 30%이며, 전자인증기술은 개인 및 중소기업 86%, 외국기업 14%로서,

– 특히 국내대기업과 연구기관의 특허출원에 비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를 98년과 비교해보면,사용자 인증기술에서 연구기관과 국내대기업, 외국기업은 각각 37%, 19%, 2%, 메시지인증기술에서 12%,18%,5%, 전자인증기술에서 8%, 8%, 39%, 감소한 것이지만, 개인 및 중소기업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인증, 전자인증기술에서 각각 58%, 35%, 45%가 증가한 것이다.

O 이러한 추세를 통해 본다면 올해에도 대부분의 인증관련기술 특허출원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1세기 전자상거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외국의 선진기업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 99년에 특허출원한 기술을 살펴보면, 메시지 인증 기술분야는 통신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인증하는 출원이 많았고, 사용자 인증분야에서는 이미지를 이용한 패스워드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출원이 많았으며, 전자인증분야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을 이용한 제3자의 인증기술이 많이 출원되었다.

O 이를 98년과 비교하여 보면, 메시지 인증 기술분야에서는 난수와 암호를 이용한 방식에서 통신프로토콜을 이용한 기술로, 사용자 인증분야에서는 문자, 숫자 대신에 이미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자인증분야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인증에서 오프라인을 이용한 인증으로 기술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이러한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면 올해에도 전년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기술에서는 카드 또는 식별도구를 이용한 인증, 전자인증에서는 무선통신을 통한 인증 등으로 발전되어 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친화기술 관련출원 급증추세

- 특허출원 증가에 비해 기술수준은 아직 미흡 -

특허청에 따르면 생물학적 오폐수처리기술 등 환경친화기술에 관련된특허출원 건수는 99년 1,450건으로 지난 10년간 8배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빠른 증가속도와 함께 출원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종전에는침전 등 물리 ·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수처리기술, 오염물의 소각처리기술,오존 등을 이용한 정화기술이 주종을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생물학적오폐수처리기술, 촉매를 이용한 공기정화 또는 수처리기술, 지구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흡착 제거기술, 해수를 이용한 전기발전방법,바다에 유출된 오일의 흡착재,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처리방법, 생분해성 수지 등의 기술이 출원되고 있어 출원기술의 내용이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도 출원기술의 대부분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유해가스, 매연, 분진, 오 · 폐수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을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저감시키기 위한 후처리 기술에 치우치고 있는 바, 이들 기술은환경오염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인구증가 및 산업화 등으로 날로심화되고 광역화하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태양에너지이용기술, 수소저장기술 등 청정연료 관련기술,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등무공해 자동차기술, 전자빔을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기술, 이산화탄소 흡착 및 재이용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를정화시키기 위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주관하에 1992. 6월 리우「기후변화방지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후속 협상과정에서 탄소세 부과등 온실가스 배출규제수단을 강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협약 적용국가도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추가될 전망이 크다.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CFC(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UNEP(United Nations Evironment Programme)에서는 1986년「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였고,현재 그 규제항목과 적용국가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인「그린라운드」(Geen Round)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 생산공정과 제도까지 관세를 통하여 국가간 무역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증가율이 큰 우리나라는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기울여야할 것이 요망된다.

표1. 환경친화기술의 특허출원 현황

(단위: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90	210	290	370	490	580	810	1,150	1,380	1,450

발록2000 · 09